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日 기준금리 1.00% 인상

- 日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 지난해 1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추가 인상
- 31년래 최고치이나 예고된 인상, 우치다 부총재 “추가 인상 경기에 따라”
- 점진적 인상 경로 유지할 것. 올해 하반기 1회(연말 日 기준금리 1.25%) 예상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KOSPI Target 11,500p 로 상향 조정. 화려한 피날레(Finale), 변곡점은 8 월말 ~ 9 월초

- 26년 KOSPI Target 11,500p로 상향조정(기존 8,800p)
- KOSPI는 실적/정책 장세. 선행 EPS 상승 추세로 KOSPI 상단 열어 놓을 필요
- 3분기 선행 EPS 변화율 체크. 4분기는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확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종전 MOU 전자 서명으로 Risk-On 지속, BOJ도 무사히 소화

- 종전 MOU 전자 서명 완료, Risk-On 랠리 지속
- 일본 31년 만에 1%대 금리, 시장 충격은 제한적
- 개별 모멘텀 부각, 업종별 순환매 확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BOJ 금리 인상.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꼬리표.. 증시 불편 요인

- 16일 BOJ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위험 확대 + 5~6월 엔화 약세 반영
- ECB에 이은 BOJ 금리 인상 행보. 6월~3/4분기, 글로벌 통화 긴축 꼬리표
- BOJ 통화정책 영향을 상쇄시키는 소비세 인하 논의 및 사나에노믹스 기대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Initiation] IT 애널리스트가 롯데렌탈, 추천한 이유?

- 미래의 모빌리티 업체로 성장, 자동차는 소유에서 렌탈로 전환
- 26년~29년 CAGR 성장은 매출 8.0%, 영업이익 11.3% 추정
- 실적 호조 및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가치(인수금액)는 상승 전망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Preview] 미스트홀딩스: 고환율 여건 속에 완만한 이익 성장 전망

- 동사에게 유리한 고환율 여건 속 영업이익의 완만한 증가 전망
-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인기 많은 브랜드 유통사업 확대 추진 중
- 하반기 내수 부문 브랜드 회복 가시화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日 기준금리 1.00% 인상

- 日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 지난해 1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추가 인상
- 31년래 최고치이나 예고된 인상, 우치다 부총재 “추가 인상 경기에 따라”
- 점진적 인상 경로 유지할 것. 올해 하반기 1회(연말 日 기준금리 1.25%) 예상

일본은행(BOJ), 6월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6월 16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기존 0.75%에서 1.00%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기업 간 가격 전가 빠르게 진행 중” “소비자물가 구조적으로 2% 상회 위험”
“금리 끌어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

BOJ는 성명서를 통해 “근원 물가가 에너지 부담 완화책 효과 등에 의해 2%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원유 가격 상승을 기점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이라며 “이것이 향후 소비자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의 구조적인 상승률이 목표치 2%를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도 후반부터 2027년도에 걸쳐 목표치 2%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 그 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BOJ는 “일본 경제는 중동 정세의 영향에 일부 약한 움직임도 보이지만 완만하게 회복”이라며 “그동안 정부에 의한 에너지 부담 완화책을 비롯한 각종 시책의 효과가 앞으로도 전망될 뿐만 아니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의 대체 조달이 진전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경제 하방 위험은 평소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BOJ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금융환경이 완화적임을 감안하면 경제와 물가 금융 여건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BOJ는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조치(테이퍼링)를 2027년 4월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BOJ는 월간 국채 매입 예정액을 2027년 3월까지의 원칙적으로 매 분기 2천억 엔 정도씩 감액하고, 2027년 4월 이후엔 월간 매입 규모를 약 2조 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은 경기에 달렸다” 하반기 추가 1회 인상 전망

일본의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이미 금융시장에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료 노출을 마친 바 있어 실제 금리 결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KOSPI Target 11,500p로 상향 조정. 화려한 피날레(Finale), 변곡점은 8월말 ~ 9월초

- 26년 KOSPI Target 11,500p로 상향조정(기존 8,800p)
- KOSPI는 실적/정책 장세. 선행 EPS 상승 추세로 KOSPI 상단 열어 놓을 필요
- 3분기 선행 EPS 변화율 체크. 4분기는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확인

26년 KOSPI Target 11,500p로 상향조정(기존 8,800p)

5월초 이후 반도체 / 비반도체 순이익 각각 13.23%, 3.47% 상향조정. KOSPI 상승 여력 확대. 한편, **반도체 밸류에이션 정상화 수준은 7배에서 중앙값(8.8배)으로 상향 조정**.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히 있지만, 금리인상 우려를 상당부분 선반영했고, 장기 계약 확대로 인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 현재 시 서버용 D램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가까이 장기 계약 형태로 진행 중 **비반도체 업종의 경우 상법 개정 시행,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공시, 주주 친화 정책 등을 반영해 현재 12.71배에서 15배로 밸류에이션 개선 예상** 12M Fwd EPS도 3월말 666.6p, 4월말 926.8p에서 **6월 15일 1,056.4p로 레벨업**. KOSPI 8,500선 돌파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 8배 수준에 불과.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지수 레벨업 가능. 선행 PER 9.5배(01년 이후 평균) 10,035p, 10배(10년 이후 평균) 10,560p에 달하는 상황. **26년 KOSPI Target은 선행 EPS 10% 상향 조정에 PER 10배를 반영한 11,500선으로 상향 조정**.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은 감안해야겠지만, 실적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정상화, KOSPI 사상 최고치 행진은 반복될 전망

KOSPI는 실적/정책 장세. 선행 EPS 상승 추세로 KOSPI 상단 열어 놓을 필요

현재 KOSPI는 전형적인 실적/정책 장세. 선행 EPS 상승 국면에서는 KOSPI 상승추세 지속될 전망. **선행 EPS 꺾이기 전까지 KOSPI 상단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음**. 2분기 실적 시즌 체크. 반도체 업종의 2분기, 전분기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변화율은 56%, 37%. Trend Force 2분기 반도체 가격 변화율 58 ~ 75% 예상(전분기대비) 추가적인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존재

반도체 이익 모멘텀 강화, 실적 전망 상향조정 흐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KOSPI 상승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 분기별, 연간 영업이익 전망 상향 조정 업종이 17 ~ 19개에 달하는 상황.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반도체는 물론, 비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개선 가시화(수출, 환율효과)** 이와 함께 미국 - 이란 평화협정 타결로 **유가 안정(70달러 후반) 나비효과(채권 금리, 달러 하향 안정)가 가세**하면서 7월, 8월 KOSPI 상승 탄력 강화 예상

3분기 선행 EPS 변화율 체크. 4분기는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확인

26년 3분기 후반부터 **선행 EPS 변화율 체크**. KOSPI를 동행 또는 일부 후행. **EPS 성장률은 25년 8~9월 마이너스 권에서 급등 시작. 26년 3분기 중후반부터 EPS 성장에 기여 부담 작용 전망**. 26년 실적 전망 레벨업에 따른 기여 부담도 경계. **27년 또는 28년 이익 증가율 둔화, 마이너스 반전시 선행 EPS 고점 통과 가능성 확대**. 선행 EPS와 KOSPI 간의 상관관계(2001년 이후)는 0.937에 달하는 상황. 선행 EPS 방향성이 KOSPI의 추세를 결정 지을 것

한편, **26년 4분기부터 유가, 물가 레벨에 따른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체크**. 경기 회복과 공급 제약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 경계(4분기 이후). 8월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 및 가이던스 발표 여부, 9월 FOMC(16일)에서 27년 금리인상 공식화 가능성 경계. 유가 상승 재개와 함께 유동성 위축, 금리인상 사이클 진입은 **실적/매크로 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전환** 여부는 물론, 경기/실적 정점 통과 압력을 높일 수 있음

종전 MOU 전자 서명으로 Risk-On 지속, BOJ도 무사히 소화

- 종전 MOU 전자 서명 완료, Risk-On 랠리 지속
- 일본 31년 만에 1%대 금리, 시장 충격은 제한적
- 개별 모멘텀 부각, 업종별 순환매 확산

종전 MOU 전자 서명 완료, Risk-On 랠리 지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MOU에 전자 서명했다는 소식 이 전해짐.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라바프 의회 의장 또한 전자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보도.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이란 대리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병력 주둔도 유지하겠다고 밝힘. 이에 중동 내 군사적 충돌 우려가 잔존

19일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핵 합의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도 존재. 그렇지만 시장은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상황 이에 WTI가 8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Risk-On 심리가 강화.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전개했고, 특히 마이크론(+10.8%), 샌디스크(+6.5%), 웨스턴디지털(+16.1%) 등 반도체가 급등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를 지지

반도체: SK하이닉스(+4.1%), 삼성전자(+1.8%), SK스퀘어(+6.2%)

일본 31년 만에 1%대 금리, 시장 충격은 제한적

BOJ는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0%로 25bp 인상하며 31년만에 1%대에 진입. 투표 결과는 7대 1이었고, 반대한 아사다 위원은 생산, 고용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

BOJ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하여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 제시. 다만 국채 매입 축소 관련해서 27년 3월까지 분기당 2천억엔 감액 후, 4월부터는 월 2조엔 수준 매입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

매파적 기조가 강화됐음에도 국채 매입 완화 조치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 일본 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가 1.41%, 2.64%로 상승한 가운데, 미국채 금리는 FOMC를 앞두고 관망세 시현

개별 모멘텀 부각, 업종별 순환매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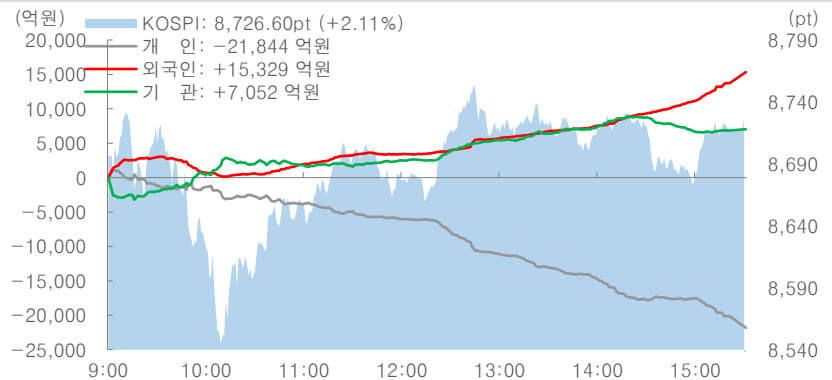
원전 수주, 풍력개발 금지 취소 등 개별 호재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방산: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18.6%), 한화에어로스페이스(+9.1%)

건설: 대우건설(+19.9%), DL이앤씨(+13.2%), 삼성E&A(+8.8%), GS건설(+5.3%)

친환경: 씨에스윈드(+29.8%), SK오션플랜트(+26.9%), SK이터닉스(+14.2%)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OJ 금리 인상.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꼬리표..증시 불편 요인

- 16일 BOJ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위험 확대 + 5~6월 엔화 약세 반영
- ECB에 이은 BOJ 금리 인상 행보. 6월~3/4분기, 글로벌 통화 긴축 꼬리표
- BOJ 통화정책 영향을 상쇄시키는 소비세 인하 논의 및 사나에노믹스 기대

BOJ, 6월 금리 인상. 3월 중등 사태 물가 상승 위험 확대 + 5~6월 엔저 반영

16일 BOJ는 4월 보류했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콜금리 운영목표 0.75%→1.00%, 25bp 인상). 4월부터 중등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이 강조됐던 상황과 5월 초 156.3엔까지 내려갔던 엔화가 6월 중순 160.5엔까지 상승하면서 6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앞서 BOJ는 4월 경제전망을 통해 유가 상승,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하여 올해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한 바 있다.

BOJ는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긴축(QT) 중단 시점을 예고했다. BOJ는 24년 8월부터 매 분기 국채매입 규모를 2,000억 엔씩 줄어나가고 있다. 27년 3월까지 유지하되 4월부터는 감액을 멈추고 월 2조 1,000억 엔 규모로 국채매입을 유지하게 된다. 양적긴축 중단 시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 시장 내 자칫 과도해질 수 있는 유동성 긴축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이다.

ECB에 이은 BOJ 금리 인상 의미. 6월~3/4분기,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꼬리표. 증시 불편함 지속

5일 미국 5월 고용지표 결과가 가져온 미국 통화긴축 부상이, 11일 ECB에 이어 16일 BOJ 금리 인상이 연이어 단행되면서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18일(한국 시각) 6월 FOMC 결과도 물가 상승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3~5월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매파적 금리 동결은 불가피하다.

19일 미국-이란간 종전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지만, 그 기대감은 올해 4~5월 두 달간 글로벌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종전 협상 체결 후, 이에 버금가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벤트 소멸에 따른 증시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6월~3/4분기 동안, 경제지표를 통해 물가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꼬리표는 증시의 불편함을 지속시킬 것이다.

BOJ 금리 인상 불구, 소비세 인하 논의 및 사나에노믹스 기대로 엔화 강세 제한. 일본 증시, 6월~3/4분기 증시 변동성 과도할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 유효

엔화는 BOJ 통화정책보다 이를 견제하는 정부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 중이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 상승 가속과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고 수준으로 BOJ는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저소득 가구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2년)으로 소비세 감세를 논의 중이다. 필요 재원은 5조엔 정도로 추산되나, 이란 전쟁 발생으로 자원 마련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를 빨리 시행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기존 계획(지출 구조 조정 등)과 달리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BOJ의 금리 인상이 엔화 약세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 일본 증시는 BOJ 통화정책보다 3가지 화살(인플레이션 대응, 성장 산업 투자, 국가 안보)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는 사나에노믹스 기대를 더 반영하고 있다. 6월~3/4분기 증시 변동성 과도 시, 비중확대가 필요하다.

롯데렌탈 (089860)

IT 애널리스트가 롯데렌탈, 추천한 이유?

- 미래의 모빌리티 업체로 성장, 자동차는 소유에서 렌탈로 전환
- 26년~29년 CAGR 성장은 매출 8.0%, 영업이익 11.3% 추정
- 실적 호조 및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가치(인수금액)는 상승 전망

투자 의견 매수(BUY)/목표주가 46,000원 신규 제시, 커버리지 개시

투자 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46,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배 적용(실적 성장기에 평균)으로 신규 제시. 2026년 매출(3.16조원)과 영업이익(3,546억원)은 각각 8.3%(yoy), 13.5%(yoy)씩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 미래의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소유에서 렌탈로) 속에서 성장의 리더십을 예상,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대 제시. 투자포인트는

미래의 모빌리티 업체로 고성장 예상, M&A 대상의 가치는 상승 전망

- 1)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에서 대표적인 성장 기업으로 판단, 현시점에서 재평가가 필요. IT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SI 에이전트 성장으로 자동차는 소유에서 렌탈로 패러다임의 전환, 자율주행이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렌탈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전망.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롯데렌탈은 차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우위 및 종합 솔루션의 제공으로 장기 / 단기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예상
- 2) 롯데렌탈은 연평균(CAGR) 성장에서 2023년~2025년 매출에서 2.1%, 영업이익은 0.4%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2029년에 매출은 8.0% 성장, 영업이익은 11.3%로 성장이 확대될 전망. 특히 2026년 본격적인 수익성의 성장 구간에 진입 분석. 2023년 새로운 CEO(최진환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렌탈의 종합솔루션을 제시, 저성장 및 저수익 사업의 중단과 렌탈의 다변화(장기, 단기, 중고 차렌탈)와 케어 서비스를 접목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이전대비 확대
- 3) 새로운 인수 관점에서 투자자는 롯데렌탈을 늦게 인수할수록 인수 금액 및 가격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적인 2026년 실적 상향 가능성과 렌탈 시장 리더십, 종합솔루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하면 주가의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2026년 P/E 7.4배는 역대 최저 수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매출액	35,124	37,232	2,919	3,160	3,457
영업이익	702	745	313	355	400
세전순이익	435	477	167	200	238
총당기순이익	261	286	127	151	181
지배지분순이익	256	281	128	151	181
EPS	716	786	3,514	4,148	4,978
PER	21.4	19.5	9.0	7.4	6.2
BPS	31,041	31,865	43,125	46,089	49,882
PBR	0.5	0.5	0.7	0.7	0.6
ROE	2.3	2.5	8.4	9.3	10.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롯데렌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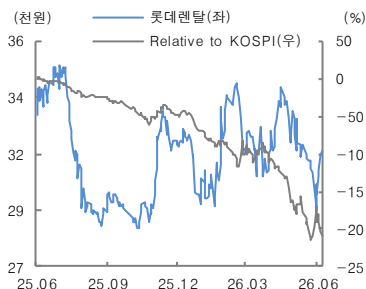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 **46,000**
신규

현재주가 **31,600**
(26.06.16)

기타서비스업종

KOSPI	8726.6
시가총액	1,14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8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5,060원 / 28,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억원
외국인지분율	7.01%
주요주주	호텔롯데 외 8 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	-1.7	-1.1	-7.3
상대수익률	-15.1	-37.5	-54.7	-68.7



미스토홀딩스

(081660)

유정현

jungghyun.yu@daishin.com

홍성원

Seongwon.hong@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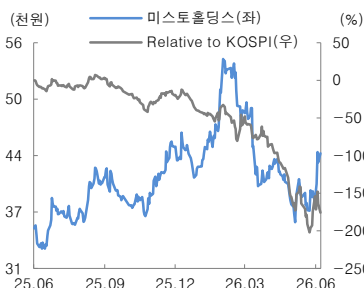
43,750

(26.06.15)

섬유의복업종

KOSPI	8545.98
시가총액	2,32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6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4,200원 / 33,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9억원
외국인지분율	41.75%
주요주주	피에몬테 외 3 인 40.69% 국민연금공단 7.6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6	-8.0	0.9	29.6
상대수익률	-2.1	-40.9	-51.7	-56.1



고환율 여건 속에 완만한 이익 성장 전망

- 동사에게 유리한 고환율 여건 속 영업이익 완만한 증가 전망
-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인기 많은 브랜드 유통사업 확대 추진 중
- 하반기 내수 부문 브랜드 회복 가시화 전망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60,000원 유지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60,000원(12개월 FWD 예상 P/E 11배) 유지

동사는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그러나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비중이 80%가 넘어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점은 매우 큰 장점으로 평가

현재 중화권 브랜드 유통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로 이 사업이 동사의 기업가치를 얼마나 견인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단순 유통사업이나 규모가 커지면서 마진이 개선될 경우 재평가 될 가능성 존재. 여기에 동시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매출 회복세가 가팔라진다면 valuation 정상화도 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2Q26 Preview: 고환율 여건 속에 완만한 이익 성장 전망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3,181억원(+7%), 1,906억원(+5%)으로 전망(yoy) 중국 수수료를 제외한 FILA 내수 매출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훌세일 매출 회복이 다소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2분기 매출은 표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분기에도 리테일 채널 매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글로벌 로열티와 중국 수수료는 2분기 환율 상승 효과(+7%)로 완만한 성장 기록할 것으로 예상

영업이익은 yoy 5% 증가한 1,906억원으로 전망. 아쿠시넷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Misto 부문은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2Q26(F)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228	1,289	1,251	1,318	7.4	2.3	1,315	1,187	9.1	-9.9
영업이익	182	194	170	191	4.8	-1.6	208	160	21.7	-15.8
순이익	86	89	77	111	29.5	24.6	98	94	48.5	-15.5

자료: 미스토홀딩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4,269	4,469	4,738	4,859	4,886
영업이익	361	475	542	581	574
세전순이익	339	458	550	590	586
총당기순이익	208	349	419	450	446
지배지분순이익	84	224	314	337	313
EPS	1,398	3,743	5,248	5,629	5,215
PER	28.8	11.4	7.5	7.0	7.5
BPS	33,280	32,244	35,438	39,050	42,264
PBR	1.2	1.3	1.2	1.1	1.0
ROE	4.3	11.4	15.5	15.1	12.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미스토홀딩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